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은 선의의 경쟁으로 상호발전을



김 영 철

건국대 축산대 축산경영학과 교수

지난 반세기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매우 급속도로 성장하여 1988년말 현재 1인당 GNP가 4,030달러에 달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고도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계층간 또는 경제부문별로 고르게 배분되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1차산업부문인 농업분야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쇠퇴산업화하여 왔다. 같은 1차산업에 속한 축산분야도 1960년대초 이후 정부의 축산진흥정책에 힘을 입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고 하나 축산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양축가 농민들의 경제적 권익이 크게 보호, 개선되지 못하였다. 양축농가의 권익이 크게 보호, 대변되지 못하였던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수출주도형 공업우선정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축산부분은 국민의 식품으로 고단백축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주요부문이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로서는 축산업이 부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한다는 의미에서도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요한 축산부문에서 축산물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양축가의 권익이 보호, 대변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 축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부가 축산부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정책적으로 양축가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대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우나 이와 같은 정부의 역할에는 일반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로 양축가의 권익을 보호, 대변하는데는 그원칙들로 보아 협동조합방식이 가장 좋은 제도 중의 하나이다. 협동조합운동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나 경



부업형태의 양축농가가 전업양축농가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역조합과 업종별 조합간에는 기능 및 제도상에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제적으로 열세에 놓이게 되는 농민, 노동자, 일반소비자들이 상부상조의 행동정신으로 자기들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호, 대변하기 위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단체운동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운동은 1961년에 종합농협인 농협의 설립을 효시로 수협, 축협 등의 소위 “하향식” 협동조합과 자생적으로 발생, 성장한 신용협동조합 등 소위 협동조합의 다양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축협 및 농협, 수협 등의 소위 “하향식” 협동조합이 1988년 말에 관련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상향식 조합을 양산하는 조직상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농·수·축협이 개정된 각 협동조합법에 의거 조직상의 민주적 관리원칙을 바탕으로 앞으로 운영상의 민주적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한다면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 대변 기능이 질적으로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축산업협동조합은 1981년 축협법에 의해 설립되어 1988년 현재 양축농민 202천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지역조합 144개와 업종별 조합 17개 등 총 161개의 회원조합과 축협중앙회의 전국 2단계 연합조직으로 되어 있다. 축협은 축협법에 명시된 바와같이 “양축가의 자주적인 협동조합을 육성하여 축산업의 진흥과 그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목적으로 하고 있다.

축협의 기본역할은 조합원인 양축가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축산업의 진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문협동조합이다. 즉 축협을 통하여 조합원인 양축농가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 대변하여 우리나라 축산업을 발전시킨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축협은 그 본래의 기능상 오히려

전업축산농가를 조합원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 중심의 축산업 전문협동조합의 성격이다. 물론 우리나라 축산업을 보면 외국에서 볼 수 있는 대규모 기업형태의 전업 축산농가형태가 아니라 영세한 부업형태의 소규모 양축농가가 대부분이다. 축산업을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영세한 부업규모의 축산업에서 전업규모로의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다.

축협의 중요한 역할은 조합원 양축농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효율적인 경영규모의 전업축산농가로 육성시키는 문제이다. 축협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대부분 소규모 부업형태의 양축농가를 주축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업종별 조합은 축종별로 전업형태의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축협의 역할은 소규모 부업형태 양축농가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축협을 전업형태의 양축가로 지원육성시키는 문제이다. 결국 부업형태의 양축농가가 전업양축농가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지역조합과 업종별 조합간에는 기능 및 제도상에 상당한 융통성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전업양축농가를 주축으로 하는 업종별 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무구역조정 등의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제도적으로 동일지역 내에서라도 축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지역조합과 업종조합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상호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축협은 축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결국 업종별 축협 중심의 전문축협으로 발전되어야 하나 현재와 같이 발전단계에서는 지역조합과 업종별조합을 다같이 육성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